



1395

노래: 조용필
작사: 양인자
작곡: 김희갑

그 겨울의 찻집

Em Am B7 Em G B7

Em Am B7 Em

바람 속으로 걸어 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

Am B7 Em Am Em D

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지 샌 긴 밤이

B7 Em Am D G B7 Em E7 Am

여 뜨거운 이불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아 웃고 있어도

Em F#m7-5 B7 Em Am Em

눈물이 난다 그대나의 사랑아 김태경

Am D B7 Em Am B7

D.S.

Em Em G B7 Em

아

